

도시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체계적 분석

A Systematic approach on the Urban Housewife's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Family Economy Contribution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계 선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강 기 정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Sun Ja, Ky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Ki Jung, K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ypothesized a causal model of subjective perception of contribution to the family economy utilizing system theor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respondent's personal subsystems were 3.62 out of 5. And The family solidarity was affected by the following variables in order : housewife's age, income, type of occupation,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job satisfaction, control orientation, and information utilization.

2) The mean score of managerial subsystems were 3.68 out of 5.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of housewives was affected by the following variables in order: housewife's type of occupation, degree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control orientation, information utilization.

3) The mean score of housewives' subjective perception of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was 3.36 out of 5.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contribution to the family economy of the employed housewives were greater than unemployed housewives.

4) It was found that managerial subsystems had mostly effected on subjective perception of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1. 서 론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 41.9%에서 1996년 48.7%로 증가하였고, 기혼여성은 50.5%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1997). IMF 이후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사상 최고인 7.6%의 실업률 및 11.3%의 유보실업률로 다섯가구 중 한 가구는 실업자가 될 상황에서(조선일보, 1998. 8.26), 가장(家長)의 수입만으로 가족생계가 유지되던 1가구 1봉급(single income/single earner)신화는 깨지고 있다. 또한 가장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물가상승 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맞벌이(double income/dual-earner)로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현상이 되고 있다.

기혼여성이 취업을 할 경우, 취업주부는 소득을 획득하며 이를통해 가계의 빈곤을 극복하고 가장의 실직·질병·사망이나 이혼 등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킴으로서 가정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이연숙의 1991).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도 가사노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형태를 변형, 개조, 가공하여 효용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얻는다(Fitzsimmons & Willians, 1973; Manning, 1979). 즉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에 종사함으로써 획득하는 소득은 시장생산에 참여함으로써 포기한 가사노동 비용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가정소득의 기여분으로 볼 수 있다(이정우 외, 1997).

이와같이 기혼여성은 가계경제 향상을 위해 가정안과 밖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는 기혼여성들이 가정의 소득을 자신의 돈처럼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며, 노동의 댓가도 임금을 받는 남편의 노동능력과 일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평가 절하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역, 1987; 계선자·박미금, 1994). 특히 노동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경제적 기여로 볼 때, 노동의 주체인 주부의 가정경제 기여수준 평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고 않다. 가정경제기여와 관련된 국외 연구들에서는 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최근까지 주부의 취업에 의해 가정경제적 기여가 증가하며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입증하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Hanson, 1991, Pritchard, 1990; Hefferan, 1982).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주부의 증가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몇몇 연구(이기춘·민현선, 1992; 장병옥, 1997; 양세정, 1997)가 수행된 바 있으나,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정경제의 많은 부분이 가정의 외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기혼여성은 경제적 자원의 생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계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Godwin & Carrole, 1986; 김순미, 1993). 이러한 기혼여성의 가계관리능력은 개별가계의 재정상태 및 객관적·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혼여성이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통해 가계경제에 미치는 주관적인 기여수준에도 중요한 변인변인으로 예측된다. 체계모델을 재무관리에 적용을 시킨 선행연구로는 재무관리태도와 행동(Godwin & Carroll, 1986), 재무관리행동과 가정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Mugenda, Hira & Fanslow, 1990; 김순미, 1993), 주관적 가계재정복지(김민정, 1994; 고보선·임정빈, 1998)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방법이 구성요소 및 요소간의 상호관련성에 관심을 두으로써 변환과정의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데 근거하여, 가족결속력을 가계관리와 함께 변환과정에 포함시켜 도시 기혼여성의 가정경제기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취업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은 전업주부와와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인적·관리적 하위체계 및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을 비교 분석하고 설명 변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 취업주부의 임금노동과 전업주부의 무보수의 형태인 가사노동에 대해 기혼여성 스스로 가정경제 기여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IMF 이후 가계재정 상태가 위축된 상황에서 도시가계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치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주부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취업으로 인한 가계 경제력 향상과 국가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투입변수 : 객관적·주관적자원

가계재무관리 체계의 구성요소 중 투입은 관리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치, 목표, 표준, 요구,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목표를 달성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중 자원은 교환가치를 가지며 소유하거나 또는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Rice & Tucker, 1986). 또한 인적 및 대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분류되는 자원은 목표를 충족시키고 자원의 형태를 변화시키므로써 가정의 생활양식에 기여하며,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자원의 사용을 통하여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투입변수 중 가계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

표가 되는 객관적 자원은 화폐소득, 일정기간의 소비지출, 소득·순자산, 순자산저량 등과 같은 재정자원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Davis & Helmick, 1985). 객관적 자원 중 특히 금전은 보다 명확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객관적 지표이며, 선행연구들(계선자·박미금, 1994; 김순미, 1993)에서는 주부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재무관리지식, 상황적 요구 등의 투입요소가 재무관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자원은 가계의 경제적 조건 및 재정자원의 관리에 관한 심리적 성향, 재정자원에 대한 노출 정도 인지 등과 같은 재정적 요구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Feldman, 1985). 이중 인간의 통제성향은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의 원천으로써, 복지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자원관리체계 측면에서 보면 내적통제 성향이 강한 관리자일수록 자신이 처한 재정상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자신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높으며, 재무관리 만족과 주관적 재정복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보선·임정빈, 1998; Hira, Fitzsimmons, & Bauer, 1993). 또한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생활격차는 개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사이의 격차에 대한 인지가 갖는 기능을 설명해주는 개념으로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Danes, Rettig & Bauer, 1991; 김순미, 1993). 이정우·장병옥(1997)은 저소득층의 경우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 때 경제적 기여감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상태가 향상되었다고 느끼거나 경제상태의 변화에 만족할수록 가정의 경제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되었다(계선자·박미금, 1994).

2. 변환과정요소 : 인적·관리적 하위체계

가계재무관리 체계모델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인 가족결속력의 인적 하위체계와 가족체계의 욕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

성의 관리적 하위체계의 차원을 통합하고 있다.

인적 하위체계로서 가족결속력은 가족원간의 정서적 상호의존, 가족 외부환경과 하위 체계간의 경계, 가족 전체활동과 개인적 활동의 보장 정도, 부부 또는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등의 능력을 말한다(Bengtson 등, 1990). 이러한 가족결속력은 주로 가족관계나 사회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므로 가계재무관리 체계모델에 적용시켜 연구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을 유도할 수 있는 순환모델의 개념인 적응력 및 응집력을 체계모델에 적용시킨 선행연구들(Fitzsimmons 등, 1991; 이연숙, 1996)을 토대로 가족결속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Galbin과 Brommel(1982)은 가족간에 결속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원의 응집패턴을 발전 유지, 변화시키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Bengtson(1990)도 가족구조,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의 정도, 응집력의 정도 및 가족성원이 수행하는 기능 등에 의해 가족결속력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의 수준에 따른 가족유형과 가정관리 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연숙(1996)은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일수록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Fitzsimmons 등(1991)도 가족 응집성이 높은 가족일수록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밀접하여, 전체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정자원관리 방법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였다. 가정관리유형과 가족결속도의 관계를 연구한 오경희(1992)는 취업주부가정의 가족결속도가 비취업 주부보다 높았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관리성향을 나타낸 주부의 가정일수록 가족결속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관리적 하위체계로서 가계관리는 한 가계의 제한된 금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써 가족원의 욕구충족 및 목표달성으로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시킬 뿐만아니라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정경제의 향상을 위해 관리자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설정, 가계부 기록 등의 계획과정과 계획을 실천하고 검토·조정하는 수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계관리행동은 가계관리자가 재정자원 사용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가계의 만족 또는 효용이 높아지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Deacon & Firebaugh, 1988; Titus, Fanslow, & Hira, 1989; Fitzsimmons, Hira, Bauer, & Hafstrom, 1993; 고보선, 1996). Titus, Fanslow와 Hira(1989)의 연구에 의하면 재무관리에서 계획행동에는 재무관리지식, 결혼여부, 교육수준, 요구 등과 같은 투입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 Sumarwan과 Hira(199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의 경우는 전업주부보다 내적통제의 성향이 높았으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선자·박미금(1994)의 연구에 의하면 재무관리 과정이 산출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재무관리 체계에서 과정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 산출요소 :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

가정경제 전반에 대한 기혼여성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취업주부의 임금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주부 자신이 지각하는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정도이다. 주부의 노동은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와 함께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가구주의 실직·질병·사망이나 이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Eggebeen & Hawkins, 1990; Pritchard, 1990).

Democratic Study Group(1990)의 연구에 의하면 1978년과 1988년의 가계소득 상태를 비교한 결과 1978년의 경우 주부소득은 총가계소득의 16.8%를 차지하였던 것이 10년 후인 1988년에는 24.4%를 보임으로써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Hanson(1991)은 미국의 1980년-83년 소비자 지출조사를 이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기여를 조사하였는데, 전업주부 가정에 비해 취업주부 가정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기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명예 및 보수는 낮은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Fitzsimmons와 Williams(1974)는 소비활동을 통하여 획득되는 심리소득이 개인의 만족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비취업주부의 경우 주부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부의 취업이 가족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이현송(1996)에 의하면, 주부소득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에 기준해볼 때 소득이 낮을수록 주부 취업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총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부취업에 의해 가계경제 상태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양세정(1997)의 주부 취업과 가계경제구조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은 저소득층에서 경제적 이유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러한 취업동기는 주부의 추가소득에 의해 가정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기춘·민현선(1992)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취업 소득이 가계에 기여하는 비율을 비교한 바, 전일제 취업주부가 38%, 부분취업 및 부업주부가 15%의 기여 정도를 보였으며, 취업주부의 소득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이연숙의 3인, 1991). 또한 개인의 소득증가는 개인의 행복감과 기여감 간에 정적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인 소득의 증가가 개인의 욕구충족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을수록 남편은 본인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가효 외, 1992).

이와같이 가정경제기여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사실상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임금노동자에 비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가사노동이 무보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화폐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현재 통계상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에 종사함으로써 획득하는 소득은 시장생산에 참여함으로써 포기한 가사노동비용과 직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 즉, 교통비·의복비·교제비·미용비를 고려한다면 시장생산에 참여하여 얻는 실제의 소득과 비교할 때 적다고 볼 수 없다(채경희·문숙재, 1989). 만일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가정부나 외부에 위임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과 직업관련 비용의 지출이 자신

이 받은 임금보다 더 많다면 가계의 화폐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그 대신 주부가 취업을 포기하고 가사노동에만 전념할 경우 가정의 부수적인 비용 지출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가정소득에 기여하므로, 가사노동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정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며 거시적으로도 GNP에 포함되어 국민복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가정경제기여감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가치측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시장생산에 참여하여 얻게되는 화폐소득만을 고려하기보다 가족자원의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는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인적 하위체계, 관리적 하위체계, 그리고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주부의 투입변수는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 그리고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도시주부의 투입변수 및 인적 하위체계, 관리적 하위체계는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도시주부의 투입변수, 인적 하위체계, 관리적 하위체계,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측정도구의 구성

1) 투입변수 척도

객관적 변인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가계소득, 가사조력자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주관적 변

인인 통제성향은 Hira등(199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통제성향을 내적통제 성향과 외적통제 성향으로 구분하여 5점 Likert 척도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 재정에 대하여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68이다. 경제수준향상감 및 미래경제기대감은 박미금(1993)의 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각각 2문항씩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에 비해 경제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미래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 문항의 Cronbach's α 는 경제수준향상감이 .72, 미래경제기대감이 .81이다. 자원적정인지도는 Rowland, Dodder와 Nickols연구(1985)를 기초로 하여 시간과 금전자원 영역에서 각 3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78이다. 정보활용도는 오경희(1992)의 연구를 기초로 9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78이다. 남편 직업안정성은 Meadows(1991)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7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4이다.

2) 인적 하위체계 척도

인적 하위체계는 가족결속력을 말하며, 가족성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힘으로 정서적 상호의존, 상호협조,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Bengtson(1990)의 척도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다. 총 5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9이다.

3) 관리적 하위체계 척도

관리적 하위체계는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을 포함하며, 이러한 가계관리는 가계관리자가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획득, 분배 및 사용등에 대한 행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ochaska-Cue(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1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Cronbach's α 는 .79이다.

4) 산출요소 척도

박미금(1993)의 연구에 근거하여 가정의 경제생활에 일상적인 소비생활, 생활표준 달성, 경제환경 변화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Meadows(1991)의 가족자원기여도 척도를 참고하여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때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가 인지하는 주관적 가정경제기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Cronbach's α 는 .85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기타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98년 4월 6일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700부의 질문지 중 61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35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신뢰계수(Cronbach's α)와 박사과정 전공자 8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잔차항분석(residual analysis), 산포도(Scatterplot), 히스토그램(histogram)을 통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또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변인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넷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신뢰도
산출 변수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	가계의 일상적소비생활+ 생활표준달성+ 경제환경 변화대 비에 대해 주부 스스로 인지하는 기여수준 (1-5점) ^a	.85
	변환 변수	인적하위체계	가족결속도 (1-5점) ^b
	관리적하위체계	가계관리의 계획 및 수행 (1-5점) ^b	.79
투입 변수	남편직업안정성	남편의 고용, 임금에 대한 안정도 (1-5점) ^b	.84
	자원적정인지도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인지도 (1-5점) ^b	.78
	정보활용도	가계재무관리를 위한 정보활용도 (1-5점) ^b	.78
	통제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상태 내적통제 성향 강함의미 (1-5점) ^b	.68
	경제수준향상감	과거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1-5점) ^c	.72
	미래경제기대감	1년후의 경제생활 전망 (1-5점) ^c	.81
	주부연령	30대, 40대, 50대, 50대 이상(기준)	
	주부교육수준	대졸이상 고졸이하(기준)	
	주부취업 유무	1=취업 0=비취업	
	가사조력자 유무	1=조력자있음 0=조력자없음	
주택소유 유무	1=자가 0=전세 및 기타		
거주지역	1=서울 0=기타광역시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200-350만원 350이상(기준)		

- a : 1=전혀기여못함 3=보통 5=매우기여함
- b : 1=전혀그렇지않다 3=반반 5=매우그렇다
- c :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만족
- d : 1=전혀활용않는다 3=반반 5=많이 활용한다
- e : 1=매우낮아질 것이다 3=비슷하다 5=매우 높아질 것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투입 변수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변환요소 및 산출요소의 일반적 경향

변환요소 및 산출요소는 4분위수(quantiles)에 의한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변환요소 중 인적 하위체계인 가족결속력은 5점 만점에 3.62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여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주부의 가족결속도(15.29)의 평균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오경희(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관리적 하위체계인 가계관리의 평균은 3.68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내, 고보선·임정빈(1998)의 연구결과 등과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출요소인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은 전체 조사대상 주부가 5점만점에 3.44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주부중 전업주부의 경우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점수가 3.21점, 취업주부는 3.52점으로 나타나, 취업주부들이 전업주부에 비해 가정경제에의 기여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주부의 25%는 평균점수가 3.00점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범주형 변수		집 단		N %		범주형 변수		집 단		N %	
	투 입 변 수	주부 연령	30대	118	22.6	주부 교육수준	고졸이하	281	52.9	13.5년	대졸이상	250
40대			196	37.5	평균		75	14.2				
50대			188	35.9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121	22.8				
50대이상			21	4.0		사무직	80	15.1				
평균			38.21년			판매·생산직	254	47.8				
수	가사조력자 유무	있음	301	56.3	주택소유 여부	자가	344	64.3				
		없음	234	43.7		전·월세	191	35.7				
거주 지역	서울시 기타광역시	327	61.1	가계소득 (만원)	~200	114	21.4					
		208	38.9		~350	308	57.8					
		평균	285.04만원		350+	111	20.8					

투 입 변 수	연속형 변수		25th	50	75th	Mean	SD
	남편직업안정성	2.86	3.14	3.71	3.22	0.65	
자원적정인지	2.83	3.11	3.66	3.19	0.68		
정보활용도	2.86	3.43	3.86	3.34	0.66		
통제성향	3.25	3.63	4.13	3.67	0.61		
경제수준향상감	2.00	3.00	4.00	3.01	0.98		
미래경제기대감	3.00	4.00	4.00	3.32	0.94		

*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표 3〉 변환요소 및 산출요소의 일반적 경향

		연속형 변수		25th	50	75th	Mean	SD
변환 요소	인적 하위체계	3.00	3.60	4.42	3.62	0.84		
	관리적 하위체계	3.25	3.75	4.00	3.68	0.64		
산출 요소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감	전체도시주부	3.00	3.38	3.87	3.36	0.67	
		전업주부	2.80	3.32	3.60	3.21	0.67	
		취업주부	3.00	3.52	4.00	3.52	0.69	

이므로 가정경제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기여한다고 인식하였던 반면 또 다른 25%는 4.00점이어서 가정경제에 대해 '매우 높게'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가 취업소득의 경제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한 이연숙 외

(1991), 문숙재·김혜연(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2. 도시주부의 인적 하위체계 · 관리적 하위체계 ·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조사대상 도시주부의 인적 하위체계 · 관리적 하위체계 ·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인적 하위체계인 가족결속력은 주부연령($\beta = -.11$)이 부적인 영향력을, 가계소득($\beta = .12$), 사무직 취업유형($\beta = .14$), 남편의 직업안정성($\beta = .13$), 자원적정인지($\beta = .34$), 정보활용도($\beta = .18$), 통제성향($\beta = .19$), 미래경제기대감($\beta = .12$)이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포함된 투입변수들은 분산의 32%를 설명하였다.

즉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전업주부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부일수록,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인수록, 자원에 대한 적정인지가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가족간의 결속 정도가 높았다.

이상의 투입변수 중 자원적정인지는 인적 하위체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족결속 정도가 높다고 인지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IMF이후 불안한 경제환경하에서 가족원이 이용가능한 금전자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족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자원인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가족원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가계관리자의 내적통제 성향이 강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 가족 결속 수

<표 4> 도시주부의 인적하위체계 · 관리적하위체계 ·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중속변인		인적 하위체계		관리적 하위체계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	
	b	β	b	β	b	β	b	β
주부연령	-.01	-.11**	-.00	-.02	.00	.00	.00	.00
주부학력(기준:고졸)	.02	.05	-.00	-.00	.01	.04	.01	.04
직업유형(기준:전업)								
전문직	.04	.02	-.16	-.11**	.27	.15***	.27	.15***
사무직	.27	.17***	.02	.01	.39	.25***	.39	.25***
판매 · 생산직	-.16	-.07	-.11	-.07	.25	.13***	.25	.13***
가사조력자(기준:무)	-.08	-.05	.10	.09	.02	.01	.02	.01
주택소유(기준:자가)	-.05	-.02	.02	.02	.02	.01	.02	.01
거주지역(기준:서울)	-.05	-.03	-.04	-.04	-.02	-.02	-.02	-.02
가계소득	.00	.12**	-.00	-.06	.00	-.11**	.00	-.11**
남편직업안정성	.17	.13**	.03	.04	.07	.06	.07	.06
자원적정인지	.42	.34***	.17	.20***	.06	.06	.06	.06
정보활용도	.22	.18***	.28	.33***	.25	.24***	.25	.24***
통제성향	.26	.19***	.22	.24***	.22	.20**	.22	.20**
경제수준향상감	-.04	-.04	.02	.03	.07	.10***	.07	.10***
미래경제기대감	.11	.12***	.00	.01	.01	.02	.01	.02
상 수		.34		1.09		.61		.61
Adjusted R ²		.32		.34		.20		.20
F Ratio		10.15***		10.07***		5.57***		5.57***

* p < .05 ** p < .01 *** p < .001

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므로, 가계관리자는 가족원들의 정서적 밀착과 전체가족의 경제적 안정감 및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가치성향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조사대상 도시가계 주부의 관리적 하위체계에는 투입변수 전문직 취업유형($\beta=-.11$)만이 부적 영향을 보였으며, 자원적정인지($\beta=.20$), 정보활용도($\beta=.33$), 통제성향($\beta=.24$)이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회귀식에 포함된 투입변수들은 분산의 34%를 설명하였다. 즉 전문직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가, 자원 인지가 높을수록,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내적통제 성향이 강할수록 효율적인 가계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적 하위체계인 가계관리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 중 정보활용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관리자일수록, 자원사용에 대한 판단력이 높아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한다는 선행연구(고보선, 199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가계관리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도시가계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는 투입변수 중 전업주부에 비해 전문직($\beta=.15$), 사무직($\beta=.25$), 판매·생산직($\beta=.13$) 취업유형, 정보활용도($\beta=.24$), 통제성향($\beta=.20$), 경제수준향상감($\beta=.10$)이 정적영향을 보였으며, 가계소득($\beta=-.11$)만이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고, 회귀식에 포함된 투입변수들은 분산의 20%를 설명하였다. 즉 전업주부 보다는 취업주부가, 정보활용도가 많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경제수준에 대한 향상감을 갖고 있을수록,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주부가 인지하는 가정 경제에 대한 주관적 기여수준이 높았다.

3. 도시주부의 인적 하위체계·관리적 하위체계·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간의 인과관계

조사대상 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번째 회귀식은 인적 하위체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적 하위체계에 주부연령($\beta=-.11$)이 부적

인 영향력을, 가계소득($\beta=.12$), 사무직 취업유형($\beta=.14$), 남편의 직업안정성($\beta=.13$), 자원적정인지($\beta=.34$), 정보활용도($\beta=.18$), 통제성향($\beta=.19$), 미래경제기대감($\beta=.12$)이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포함된 투입변수들은 분산의 32%를 설명하였다.

두번째 회귀식은 관리적 하위체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직 취업유형($\beta=-.11$), 가사조력자($\beta=.10$), 자원적정인지($\beta=.11$), 정보활용도($\beta=.30$), 인적 하위체계($\beta=.21$)가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관리적 하위체계 분산의 36%를 설명하였다. 즉 전문직 취업주부 보다는 전업주부가,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 자원적정인지가 높을수록,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가계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회귀식은 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직($\beta=.18$), 사무직($\beta=.23$), 판매생산직 취업유형($\beta=.14$), 정보활용도($\beta=.15$), 통제성향($\beta=.13$), 경제수준향상감($\beta=.11$), 인적 하위체계($\beta=.11$), 관리적 하위체계($\beta=.22$)가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가계소득($\beta=-.14$)이 부적 영향을 보였고,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27%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가,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 성향을 보일수록, 경제향상감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가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록, 조사대상 주부는 주관적 가정경제기여 수준을 높게 인지하였다.

주부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내적 통제성향을 가질수록 가계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부 자신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을 높게 인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들의 가계관리 능력이 가정경제기여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별화된 가계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Software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을 결정하는 예측인자 중 전업주부에 비해 사무직 취업주부가,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가 인적 하위체계 요소 보다 주

〈표 5〉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인적 하위체계		관리적 하위체계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	
		b	β	b	β	b	β
투입 변수	주부연령	-.01	-.11**	-.00	-.00	.00	.01
	주부학력(기준:고졸)	.02	.05	.00	-.01	.01	.02
	직업유형(기준:전업)						
	전문직	.04	.02	-.17	-.11*	.32	.18***
	사무직	.27	.17***	-.02	-.02	.36	.23***
	판매·생산직	-.1	-.07	-.08	-.05	.27	.14***
	가사조력자(기준:무)	-.08	-.05	.09	.10*	.06	.04
	주택소유(기준:자가)	-.05	-.02	.03	.03	.01	.01
	거주지역(기준:서울)	-.05	-.03	-.03	-.03	-.01	-.01
	가계소득	.00	.12**	.00	-.04	.00	-.14**
	남편직업안정성	.17	.13**	.01	.02	.05	.05
	자원적정인지	.42	.34***	.09	.11*	.00	.00
	정보활용도	.22	.18***	.25	.30***	.15	.15**
	통제성향	.26	.19***	.18	.20***	.14	.13**
경제수준향상감	-.04	-.04	.02	.04	.07	.11**	
미래경제기대감	.11	.12***	.00	-.01	.00	.00	
변환 변수	인적하위체계			.14	.21***	.09	.11**
	관리적하위체계					.27	.22***
상 수			.34		.96		.40
Adjusted R ²			.32		.36		.27
F Ratio			10.15***		11.18***		6.02***

* p < .05 ** p < .01 *** p < .001

관적 가정경제기여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가정경제기여에 주부의 취업유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혼 여성이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부들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임금노동에 보다 가치를 두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경제적 기여에 대한 선행연구들(Pritchard, 1990; Eggebeen & Hawkins, 1990; 양세정, 1997)도 주부의 취업에 의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부 취업이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후속연구에서는 직업여부에 따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모색하는 것도 의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인 가정경제기여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주부 개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환경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기여도 계산이 선행되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취업주부의 임금의 적합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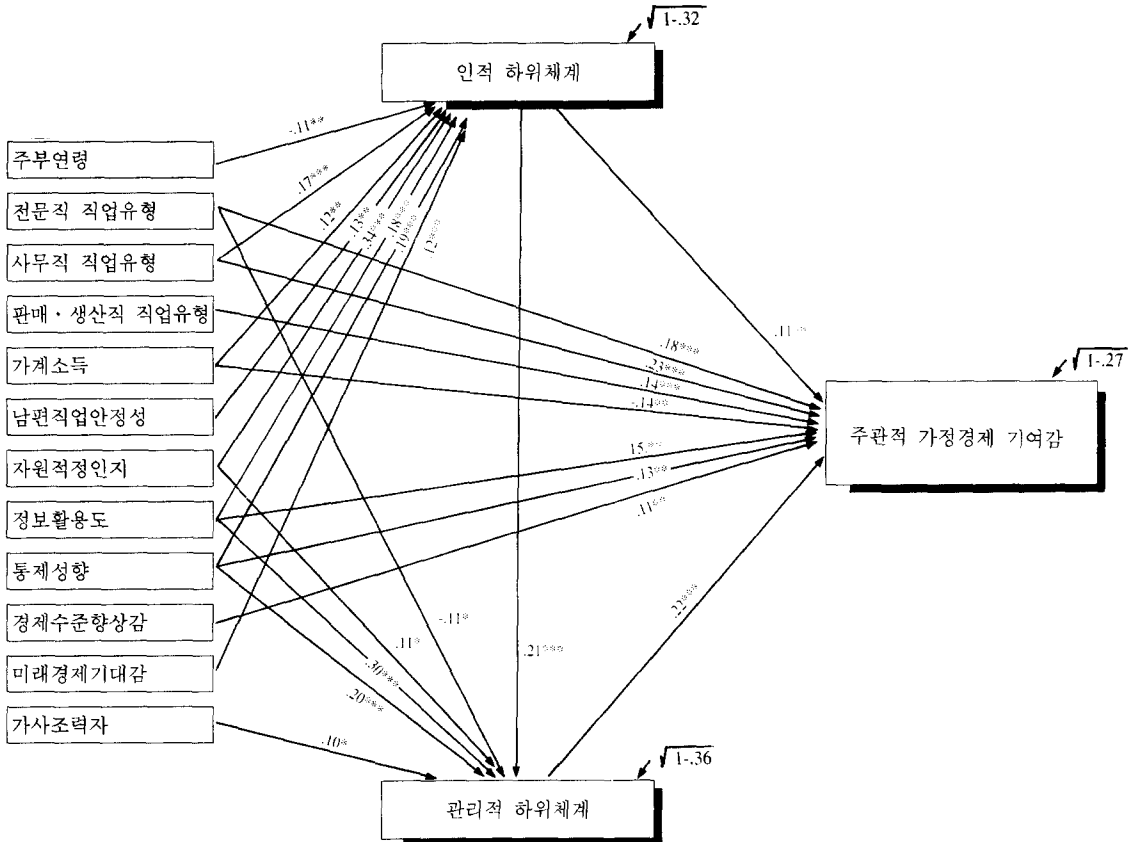
4. 도시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의 인과모형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주관적 가정경제기여의 인과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인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를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6). 기혼여성의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변인 중에서 11개의 투입변수(14개의 변인 중 11개 변인)가 변환변수를 매개로 하여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과모형의 적합함이 검증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체적 효과를 살펴보면, 관리적 하위체계, 통제성향, 인적 하위체계, 정보활용도, 남편직업안정성, 가계소득, 사무직 취업유형, 자원적정인지, 경제수준향상감, 미래경제기대감, 전문직 취업유형, 판매·생산직 취업유형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사무직 취업유형은 직접효과($\beta=.23$)

와 간접효과($\beta=.031$)를 보여 전체 인과효과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관리적 하위체계로 직접효과($\beta=.22$)를 보여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감에 대한 전체 인과효과를 증가시켰다. 정보활용도도 직접효과($\beta=.06$)와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에 대한 전체 인과효과를 증가시켰으며, 통제성향도 직접효과($\beta=.13$)와 간접효과($\beta=.05$)를 보여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전체 인과효과를 증가시켰다. 인적 하위체계 또한 직접효과($\beta=.11$)와 관리체계를 경유하여 간접효과($\beta=.03$)를 보여 정적인 영향력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가계소득은 직접효과($\beta=-.14$)와 간접효과($\beta=-.04$)를 보여 직접·간접효과 모두 부적인 영향력으로 주관적 가정경제기여에 대한 총인과 효과를 증가시켰다.



〈그림 1〉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의 인과모형

〈표 6〉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의 인과효과

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인과효과	
주부연령	-.14	-	인적체계 경유: -.012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4	-.016	-.02
전문직 직업유형	.07	.18	인적체계 경유: .002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1 관리적체계경유: -.024	.159	.02
사무직 직업유형	.17	.23	인적체계 경유: .019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8 관리적체계경유: .004	.261	.09
판매생산직 직업유형	.04	.14	인적체계 경유: -.008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3 관리적체계경유: -.011	.120	.05
가계소득	.17	-.14	인적체계 경유: -.011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3 관리적체계 경유: -.031	-.185	-.01
남편직업안정성	.20	-	인적체계 경유: .018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5	.023	.22
자원적정인지	.14	-	인적체계 경유: .036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11	.047	.19
정보활용도	.21	.15	인적체계 경유: .021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6 관리적체계 경유: .035	.212	.00
통제성향	.26	.13	인적체계 경유: .018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5 관리적체계 경유: .037	.168	.09
경제수준향상감	.14	.11	관리적체계 경유: .026	.136	.01
미래경제기대감	.10	-	인적체계 경유: .013 인적·관리적체계경유: .004	.017	.08
인적 하위체계	.21	.11	관리적체계 경유: .033	.144	.07
관리적 하위체계	.30	.22	-	.223	.08

한편 주부연령은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치지 않지만, 매개효과를 경유한 간접효과의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직업안정성, 자원적정인지, 미래경제기대감도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치지 않지만, 매개효과를 경유한 간접효과의 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사무직 취업유형이며, 그 다음으로 관리적 하위체계, 전문직 취업유형, 정보활용도, 판매·생산직 취업유형, 가계소득, 통제성향, 인적 하위체계, 경제수준향상감 등의 순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간접효과를 보인 변인

은 주부연령, 전문직 취업유형, 사무직 취업유형, 판매생산직 취업유형, 가계소득, 남편직업안정성, 자원적정인지, 정보활용도, 통제성향, 경제수준향상감, 미래경제기대감, 인적 하위체계로 나타나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주관적 가정경제기여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부의 연령이 낮고, 가계소득이 적으며, 전업주부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부일수록,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자원에 대한 적정인지가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내적통제의 성향을 가진 경우 가족결속력이 높았다. 투입변수 중 자원적정인지가 인적 하위체계인 가족결속력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MF 이후 불안한 경제 환경하에서 가족원이 이용가능한 금전자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족간의 이해와 상호유대를 강화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가족의 결속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전문직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가, 자원적정인지가 높을수록,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내적통제 성향이 강할수록 조사대상 주부는 효율적으로 가계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적 하위체계의 가계관리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정보활용도로 나타나, 가정관리자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하는 정보처리능력이 가족 목표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Paolucci, 1977; 오경희, 1992)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업주부 보다 취업주부가,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내적통제 성향을 지닐수록,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향상감을 느낄수록, 부부간의 가족결속력 수준이 높고, 가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수록, 조사대상 주부는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 수준을 높게 인지하였다. 특히 주관적 경제기여를 결정하는 예측인자 중 전업주부에 비해 사무직 취업주부가,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가 인적 하위체계 요소 보다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주목할 결과이다. 주관적인 가정경제기여감에 주부의 취업유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혼여성이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주관적 판단이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보다는 임금이라는 금전을 실제 가계에 기여하는 것에 보다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하는 입장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기혼여성의 경제기여 인지는 취업을 하고 있는 주부에 비해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에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는 인적 하위체계보다 관리적 하위체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가정경제기여감에 대한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을 경유한 간접효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론적 관점에 의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들간의 인과모형을 분석해 보았을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변환과정 요소의 영향력이 강조되었다(Titus, Fanslow, & Hira, 1989; 김순미, 1993). 따라서 주부들의 가정경제 기여의 인식수준은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의 올바른 인식 및 평가를 위해서는 부부간의 이해도 증가 및 보다 합리적인 가계관리의 계획 및 수행이 우선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위해 변환과정의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감에 관련이 있는 보다 구체적인 변인들을 추출하여 체계모델에 적용함으로써 변인간의 시간흐름과 영향력을 파악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제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학력 및 가계의 재정상태관련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의 SES가 중상층에 치우침으로서 가계 재정상태의 차별성을 두는데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화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조사대상 선정 및 표집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기혼여성의 노동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국민경제에 기여를 파악하는 것은 노동의 주체로서 주체성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 수준 측정을 위해 전업주부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으나 기여 수준의 정확한 측정 평가에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기여와 더불어 객관적 기여에 관련된 측정이 필요하며,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직업지위를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경제 기여 분석을 위한 정교화된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통하여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살펴보면서 가정경제 기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지침을 제시하는데 미흡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가정경제기여감과 만족도 혹은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고보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 고보선·임정빈(199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권1호, 59-77.
- 3) 계선자·박미금(199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 2호, 106-117.
- 4) 김민정(1994).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5) 김순미·김민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 2호, 103-118.

- 6)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체계론의 적용 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권 2호, 195-207.
- 7) 김시월(1993). 도시 빈곤지역 취업 주부의 경제활동과 가계소득 기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8) 통계청(1997). 도시가계연보.
- 9) 레이 안드레(Rae Andre) 지음(1987). 가정주부. 한국여성개발원.
- 10) 문숙재·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4호, 39-54.
- 11)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숙대 박사학위논문.
- 12)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1992).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 생활 실태 파악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283-309.
- 13)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 14) _____(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4호, 65-182.
- 15) 오경희(1992). 가정관리유형, 생활정보활용수준 및 가족 결속도. 숙대 박사학위논문.
- 16)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 17) 이연숙(1996). 가족체계내의 역동성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295-307.
- 18) 이기춘·민현선(1992). 도시 신혼기 가계의 주부 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0(4), 17-120.
- 19) 이정우·장병옥(1997).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과 가정생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2호, 201-216.
- 20) 이정우 외(1997). 최신가정경영학. 296.
- 21) 이현송(1996).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 소득의 관계. Working Paper. ; 양세정(1997)에서 재인용.
- 22) 장병옥(1997). 취업 주부의 부부 역할수행·가정

- 생활기여도 및 만족도. 숙대 박사학위논문.
- 23) 조선일보, 1998. 8월 26일자. 7월 실업률 7.6%, 실업자 총 165만.
 - 24) Bengtson, V.,C. Rosenthal & L.Burton(1990). Families & Aging: Diversity & Heterogeneity in Handbook of Aging & the Social Sciences(3rd ed) Binstock, R.H. & L.K.George, Academic Press Inc.
 - 25) Danes, S.M., Rettig, K.D. & Bauer, J.W.(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the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with the gap Path model replication. In V. Haldeman(Ed.). The proceedings of ACCI, 15-21.
 - 26) Democratic Study Group(1990). They didn't come to the party: A tough decade for families in the middle(Special Report No. 101-32). Washington, D.C;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27)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Boston: Ally & Bacon.
 - 28) Davis, E.P. & J.A. Weber(1990).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 41-52.
 - 29) Eggebeen, D.J. & Hawkins, A.J.(1990). Economic need and wives'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1(1), 48-66.
 - 30) Feldman, F.E.(1985). Enhancing career competence-Know your client: The family in today's world. In G. Langrehr(ed). The proceedings of FC & PE, 31-42.
 - 31) Fitzsimmons,V.S., Hira,T.K., Bauer, J.W., & Hafstrom, J.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3.
 - 32) Fitzsimmons, C. & F.Williams(1974). The Family Economy:Nature and Management of Resources. Ann arbor: Edword Brothers.
 - 33) Galbin, K.M. & Brommel, J.(1982).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 Change. Scott Fores-
 - man & Co. 22.
 - 34) Godwin, D. & D.D. Carroll(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35) Gross, I.H., Cranda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e-Hall Inc., 110.
 - 36) Hanson, S.L.(1991).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earner,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33-634.
 - 37) Hefferan,C.(1982). Workload of married women. FER 3, 10-15.
 - 38) Hira, T.K.(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83-194.
 - 39) Hira, T.K., Fitzsimmons V.s., Hafstrom, J.L., & Bauer, J.W.(199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37-256.
 - 40) Meadows, L.M.(1991). Women's Contribution to Family Resources. Calgary Univ. Ph.D.
 - 41) Mugenda, O.M.,Hira, T.K., & Fanslow, A.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 Family and Economic Issues.11(4), 343-360.
 - 42) Paolucci, Hall & Axinn(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John Wiley & Sons.
 - 43) Pritchard, M.(1990). The Value of the Second Income to Two-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Lifestyles:Family and Economic Issues, 12. 127-141.
 - 44) Prochaska-Cue K.(1993). An Exploratory Study for a Model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ty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4.

- 111-134.
- 45) Rice, A.H. & S.M. Tucker.(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06-109.
- 46) Rowland,V.T., R.A.Dodder & S.T.Nickols.(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Development of a scale, HERJ. Vol.14, No2. 218-225.
- 47) Sumarwan, U.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48)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4), 309-317.